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12
2023/05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김지혜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67)

Contents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2
ITLOS, M/T Heroic Idun호 (No.2) 사건의 서면 절차 확정

국제기구

국제해저기구(ISA) ····· 8
해저광물개발에 대한 BBNJ 제도의 함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개최

지역별 동향

아시아 ····· 16
중국 중국·싱가포르, 국방부 핫라인 개통 합의
중국 중국 항모 '산둥함' 서태평양에서 첫 원양 훈련
중국 중국, 6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일본 일본-영국,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히로시마 합의 발표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비난

북아메리카 ····· 35
미국 미국의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경제적 관계 강화에 주력

유럽 ····· 37
유럽연합 유럽연합-인도태평양 각료포럼 개최
노르웨이 노르웨이 트롬쇠에 미국의 최북단 외교 공관 설립 예정
러시아 러시아 제재 장기화에 따른 몽골리아 등록 편의치적선 증가

남태평양 ····· 43
호주 호주, 필리핀의 남중국해 MDA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개
파푸아뉴기니 미국-파푸아뉴기니, 방위 및 해양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49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연구원 김 민

ITLOS, M/T Heroic Idun호 (No. 2) 사건의 서면 절차 확정

그림 1. ITLOS 재판소 엠블럼



그림 출처: ITLOS

사건의 개요

5월 19일(현지 시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특별재판부에 제소된 마셜제도와 적도 기니 간 M/T Heroic Idun 호 (No. 2) 사건의 서면 절차 일정이 확정되었다. 재판소 명령에 따라 마셜제도(Heroic Idun 호의 기국)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재판부에 변론서(Memorial)를 제출해야 하며, 적도 기니는 이에 대한 항변서(Counter-Memorial)를 2024년 5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ITLOS 특별재판부는 2023년 4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소장, 인판테 칼피(María Teresa Infante Caffi) 재판관, 케시 앤 브라운(Kathy-Ann Brown) 재판관을 비롯하여, 마셜제도의 구드문트 에이릭손(Gudmundur Eiriksson), 적도 기니의 필립 쿠브뢰르(Philippe Couvreur) 임시(*ad hoc*)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동 사건은 석유 절도 혐의로 마셜제도 국적의 Heroic Idun 호가 적도 기니 해군에 의해 억류되면서 시작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출처: Splash 247, 2023년 5월 2일

그림 2. M/T Heroic Idun 호



사건의 배경

Heroic Idun 호는 2020년 건조된 30만 dwt급 선박으로, 2022년 8월 8일 나이지리아 아크포(Akpo) 터미널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다. 아크포 터미널 인근 수역은 해적 출몰 고위험 지역으로, 사건 당시 Heroic Idun 호와 나이지리아 해군 모두 해적 출몰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이에 양측 모두 상대 선박의 소속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나이지리아 해군은 Heroic Idun 호에 정선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상대 선박의 소속을 알 수 없었던 Heroic Idun 호는 정선 명령을 거부하였고 해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투메 프린시페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출항하였다.

나흘 후, 적도 기니 해군은 Heroic Idun 호에 대해 재차 정선 명령을 내렸고, 소속을 확인한 Heroic Idun 호는 정선 후 해군의 명령에 따라 적도 기니로 향하였다. 그러나 적도 기니에 도착한 후 적도 기니 측은 Heroic Idun 호와 선원들이 자국 관할수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자국 정부 시설과 선박에 각각 억류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3. 억류된 M/T Heroic Idun호 선원



그림 출처: BARID MARITIME, 2023년 5월 29일

이에 마셜제도는, 2022년 8월 16일 적도 기니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적도 기니는 Heroic Idun 호의 석방 조건으로 약 2백만 달러의 보석금 납부를 제안하였다. Heroic Idun 호 소유주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2022년 10월 5일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선박과 선원은 석방되지 않았다. 이에 마셜제도는 ITLOS에 2022년 11월, 신속 석방(Prompt Release)을 위한 잠정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이유로 선박과 선원들이 나이지리아로 이관되면서 해당 신청은 철회되었다.

한편 나이지리아 측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석유를 적재한 혐의로 Heroic Idun 호의 선원들을 국내 기소하였다. 나이지리아 국내 법원은 Heroic Idun 호 선원들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나이지리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적으로 침범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나이지리아는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 협상 조건으로 1,500만 달러의 벌금 납부와 자국 정부에 대한 사과를 제안하였다. 이에 Heroic Idun 호의 소유주 Idun Maritime이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29일 기준으로 선박과 선원 모두 석방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4. Heroic Idun 호 선주가 선박 석방을 위하여 게시한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한 사과문



An apology to the Nigerian Navy by owners of Heroic Idun

12 May 2023 | NEWS

by Lloyd's List

AT 2130 hrs on August 8, 2022, the tanker *Heroic Idun* (IMO: 9858058) received voyage orders to approach the Akpo Terminal to load a cargo of oil. While waiting to load, the vessel was approached by what the owners now know was a Nigerian patrol vessel.

Heroic Idun was ordered to follow the patrol vessel back to Bonny. Subsequently, this approach has been reported as what was thought at the time to be a possible piracy attack.

The owners, on behalf of their vessel and crew, wish to publicly apologise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for that report and express their sincere regret for the difficulties presented to the navy and any embarrassment that may have resulted from this incident. At no time did the owners wish to undermine the reputation of the Nigerian navy or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Nigerian Navy in countering piracy and oil theft in Nigerian waters.

Following issuance of the court order on May 9, 2023, the owners are pleased that this unfortunate incident has now been resolved and are grateful for the Nigerian authorities' assistance in reaching this conclusion.

We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repatriate our crew back to their families and to successful future trading activities within Nigeria.

그림 출처: Lloyd's List, 2023년 5월 12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선박의 나포 및 장기간 구금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나이지리아와 적도 기니의 선박과 선원 억류의 적법성, 보석금 납부 후 선박과 선원의 미석방, 구금 당시 열악한 환경으로 전염병에 걸린 선원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사 업계의 비난이 거셌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논란이 재판부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 이번 사건 Heroic Idun 호의 기국인 마셜제도를 비롯하여 선주, 선박 운영자, 용선회사가 노르웨이, 스위스 등으로 모두 다르고, 억류된 선원들의 국적 또한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폴란드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그림 5. 석방 후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향하는 M/T Heroin Idun 호



그림 출처: ABP News, 2023년 6월 11일

그림 6. 귀환한 Heroic Idun 호 선원의 환영 인파



그림 출처: BALRD MARITIME, 2023년 6월 12일

출처 : [1] ITLOS, 2023년 5월 19일, "Order of The M/T Heroic Idun (No. 2) Case", [2] ITLOS, 2022년 11월 9일, “Application of the Prompt Release of a Vessel and her Crew [3] De Maribus, 2022년 11월 11일, ”ITLOS : The M/T “Heroic Idun” Case (Marshall Islands v. Equatorial Guinea), Prompt Release [4] The Maritime Executive, 2023년 5월 29일, Nigeria Release ”Oil Theft“ VLCC Heroic Idun After Plea Bargain [5] TradeWinds, 2023년 5월 29일, VLCC Heroic Idun finally leaves Nigeria after nine-month detention [6] BAIRD MARITIME, 2023년 5월 29일, Heroic Idun Released n Nigeria, Vessel and Crew Sailing to South Africa. [7] BALRD MARITIME, 2023년 6월 12일, HEROIC IDUN CREW ARRIVE HOME [8] ABP News,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2023년 6월 11일, MT Heroic Idun Case: 16 Indian Crew Members Detained For 'Oil Theft' Released By Nigeria After 9 Months [9] Nigerian Navy, 2023년 5월 12일, AN APOLOGY TO THE NIGERIAN NAVY BY OWNERS OF HEROIC IDUN, [10] Lloyd's List, 2023년 5월 12일, An apology to the Nigerian Navy by owners of Heroic Idun

국제해저기구
ISA

전문연구원 민영훈

해저광물개발에 대한 BBNJ 제도의 함의

BBNJ협정과 ISA

2023년 3월 BBNJ 정부간회의는 BBNJ협정 최종 문안을 결정하는데 합의하였다.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에 관한 협정인 이 문서는 해양의 온난화 및 산성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기반 관리, 해양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국제해저기구(ISA)를 설립하고 있어 심해저의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BBNJ협정의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두 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7. BBNJ협정 최종 문안 협상을 위한 정부간 회의(2023.4.)



그림 출처: Institute of Marine Affairs

국제해저기구
ISA

ISA는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 광물 개발을 관리, 규제,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ISA의 이러한 임무 중에는 해저 광물 개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145조 및 제157조) ISA는 현재까지 해저 광물 개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광물 규칙(Mining Code)로서 탐사 규정(Exploration Regulations)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22개의 정부 또는 기관과 약31개의 탐사계약을 승인 및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ISA는 실질적인 광물 개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개발 규정(Exploitation Regulations)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기반 관리 도구(Area-based management tools)

BBNJ협정이 채택될 경우, 당사국회의는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 설치와 함께 협정에 따른 지역기반 관리 도구(ABMTs)를 수립하여야 한다.(BBNJ협정 제19조)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제안된 ABMTs가 관할권 이원 해저 또는 이러한 해저와 인접한 해역과 관련된 경우 ISA와 협의하여야 한다.(BBNJ협정 제18조 및 제19조) 사실 BBNJ협정은 관할권 이원 해저의 해양환경 보호에 있어 ISA의 역할을 강조한다. BBNJ협정은 COP가 ISA의 역할을 약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ISA와의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BBNJ협정 제19조제2항) 뿐만 아니라 BBNJ협정은 ISA를 통한 ABMTs의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BBNJ협정 제19조제1항c호)

BBNJ협정상 ABMTs는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 또한 보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BNJ협정은 ABMTs를 개발할 때,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선주민(先主民)) 또는 지역사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그들의 전통적 지식이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BBNJ협정 제17조, 제18조제2항), 반면, ISA는 BBNJ협정의 ABMTs와 유사한 지역환경관리계획(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REMPs)를 일부 해저 광물 구역에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해양환경의 과학적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SA는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난 3월 ISA 이사회에서 태평양의 원주민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다만,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ISA의 ABMTs인 REMPs 등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제해저기구
ISA

해양환경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BNJ협정은 해양환경평가(EIAs)와 관련하여, 높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BBNJ협정과 관련된 규정들은 절차와 실체적 요건에 있어 ISA의 EIAs 규정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BBNJ협정은 특정 해양활동을 승인받기전 EIA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BBNJ협정 제22조 및 제38조) ISA는 탐사규정상 탐사작업 승인 후에 EIA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ISA는 제출된 EIA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 또는 거부를 하지 않고, 보고서의 완성도, 정확도, 수치신뢰도를 위해 단순히 검토만 할 뿐이다.(ISBA/25/LTC/6/Rev.2) 다만, 현재 이러한 규정은 광물 탐사와 시험 굴착에만 적용될 뿐 본격적인 개발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ISA는 본격적인 해저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전 EIA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심해저 망간단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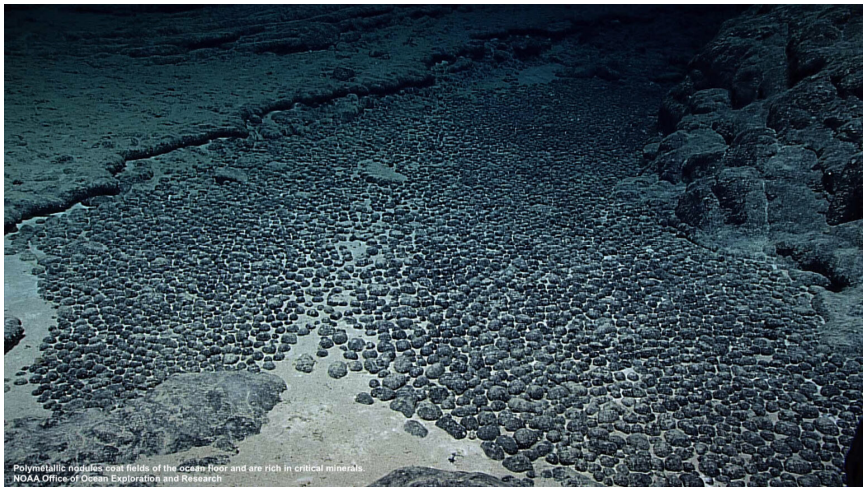


그림 출처: NOAA, NUS CIL

다음으로 BBNJ협정과 달리 ISA의 현재 EIA와 관련된 규정은 EIAs에 대해 심사단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범위 또한 BBNJ협정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BBNJ협정의 경우 EIAs를 위해, 경제, 사회, 문화, 인류 보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BBNJ협정 제301조) ISA의 EIAs는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개발 중인 광물 개발 규정 또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ISBA/28/C/IWG/ENV/CRRP.1)

국제해저기구
ISA

그리고 BBNJ협정은 EIAs에서도 문화적 영향과 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관련 전통지식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BBNJ협정 제30조) ISA의 탐사규정은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ISA의 개발 규정은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식을 몇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구속력 있는 문서로 결정지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BBNJ협정은 당사국 또는 COP가 지역전략환경평가(Regional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BBNJ협정 제41조) ISA는 이러한 SEA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광물 개발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 않다.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BBNJ협정은 해양유전자원(MGRs) 또는 해양생물과 관련된 디지털 시퀀스 정보가 해양 환경 연구(EIAs 등)의 일부로 수집되는 경우, BBNJ협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광물 개발업자들이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MGRs 또는 디지털 시퀀스 정보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물개발과 관련하여 MGR 샘플을 수집할 경우, 개발자 등은 수집된 MGR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된 지역, 수집 목적 등 MGR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BBNJ협정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에 통보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해저광물 개발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MGR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은 ISA의 환경 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BBNJ협정상 이러한 의무들이 광물개발의 스폰서 국가, 광물 개발 선박의 기국, 또는 광물 개발 회사 소재국 중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BBNJ협정과 ISA 광물 개발 활동 적용에 관한 함의

BBNJ협정의 다양한 규정들이 ISA 해저 광물 개발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연 이러한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EA의 경우, BBNJ협정은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도입하고 있으나, ISA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ABMTs과 EIAs 또한 서로 다른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어느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BBNJ협정과 ISA의 규제 대상과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국제해저기구
ISA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규제 대상과 관련하여,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생물다양성을 규제하지만, ISA는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저광물개발 활동을 규제한다. 이에, 해저광물개발이 해양생물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SA는 BBNJ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참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까지 ISA의 규정들은 광물개발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환경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결국, 2가지 양립된 제도가 같은 활동을 규제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회원국이다. 현재 ISA 규정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반면, BBNJ협정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발효된 이후 협정을 비준한 국가에게 적용된다. 결국 BBNJ협정이 발효되고 일정한 수의 회원국을 확보할 때까지, ISA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도를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시일내 해저광물개발 활동에 있어 BBNJ협정 환경 기준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BBNJ협정 최종 문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해양환경 보존에 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으로 향후 ISA가 광물 개발 규정 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BBNJ협정의 환경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EJIL:Talk, 2023년 4월 13일, How could the BBNJ Agreement affect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s Mining Code? [2] Institute of Marine Affairs, 2023년 4월 3일, The BBNJ Agreement – a win for the Ocean and Multilateralism [3] NUS CIL(Centre for International Law,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23년 4월 13일, Regime Interaction between Deep Sea Mining and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제해저기구
ISA

전문연구원 김 지 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개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협상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2)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4년까지 총 5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협약 문안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림 9. 제2차 INC 회의실 전경



그림 출처: IISD

INC-2 회의에는 169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300개 이상의 옵서버 기관에서 1,656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INC-1 회의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절차 규칙 안건 등의 절차적 부분에 대한 논의 및 결정과,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정리한 문서("Option

1) 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국제해저기구
ISA

Paper")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절차 규칙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37번(의사결정 채택) 및 38번(투표권) 규칙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회의 기간 중 거의 절반이 절차 규정에 대한 논의에 할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결정 채택 규칙(안)[2]의 잠정적 적용도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만 합의하고 마무리 됐다.

사무국이 정리한 문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가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특히 문서의 법적 의무 성격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플라스틱 협약이 파리협정처럼 각국의 역량 등에 따라 목표를 제시하는 상향식 접근을 취할 것을 선호한 반면, 주로 개발도상국들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반영하면서 모든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력한 국제협약을 희망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전주기에 따라 국가별로 선호하는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플라스틱 전주기의 상류부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한 반면,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강조한 80여개 국가들은 중상류 부문과 하류 부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회의 종료 전 국가들은 제3차 INC에서 논의되기 위한 협약초안("Zero Draft")을 사무국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3]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고자 했으며, 이번 INC-2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 의해 제5차 협상회의는 2024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4차 INC 회의는 캐나다에서 2024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2) 의사결정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
3) 외교부 공동보도자료(2023.6.3.), p.2

국제해저기구
ISA

그림 출처: IISD

그림 10. 우리나라 대표단



출처 : [1]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2023년 6월 3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2] IISD, 2023년 6월 5일, “Summary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29 May - 1 June 2023”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중국·싱가포르, 국방부 핫라인 개통 합의

중국과 싱가포르가 국방부 고위급 소통을 위한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중국 리샹푸 국방부장과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1일 만나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국방부 고위급 간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두 국방 수장은 특히 양국의 전략 소통과 안보 실무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핫라인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3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All-Round High-Quality Future-Oriented Partnership)'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 정상회담 직후인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상 훈련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양국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그림 11. 중국과 싱가포르 국방부 핫라인 개통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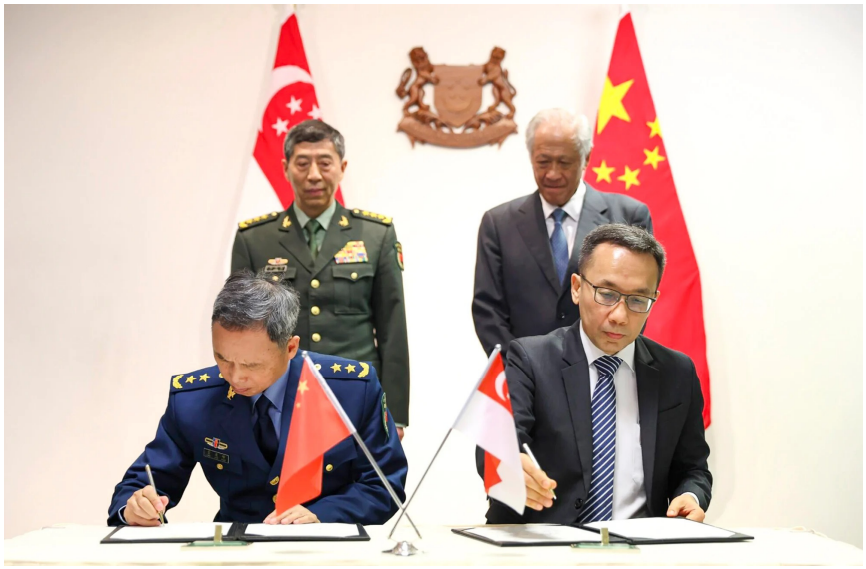


그림 출처: SCMP

아시아

중국

중·싱, '전방위적 고품질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싱가포르는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이 2023년 3월 12일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방문한 국가다. 그는 취임 직후인 4월 16-19일 국방부장으로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정식 방문했다. 이번 싱가포르 일정은 그가 국방부장으로서 정식 진행한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중국의 우방으로서 예측 가능한 목적지였지만, 싱가포르가 두 번째 방문국이 된 배경과 향후 중·싱 군사 협력 향방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렸다. 중국 국방대학 국가안전학원의 장츠 교수는 환구시보(Glob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군사 안보 협력은 중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 간 국방부 고위급 핫라인 개설은 어쨌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의 경우 싱가포르의 결정은 미중 간 무력 충돌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의지이며, 해상교통로 등 자국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주주간은 중국과 싱가포르의 군사 협력이 더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 12.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20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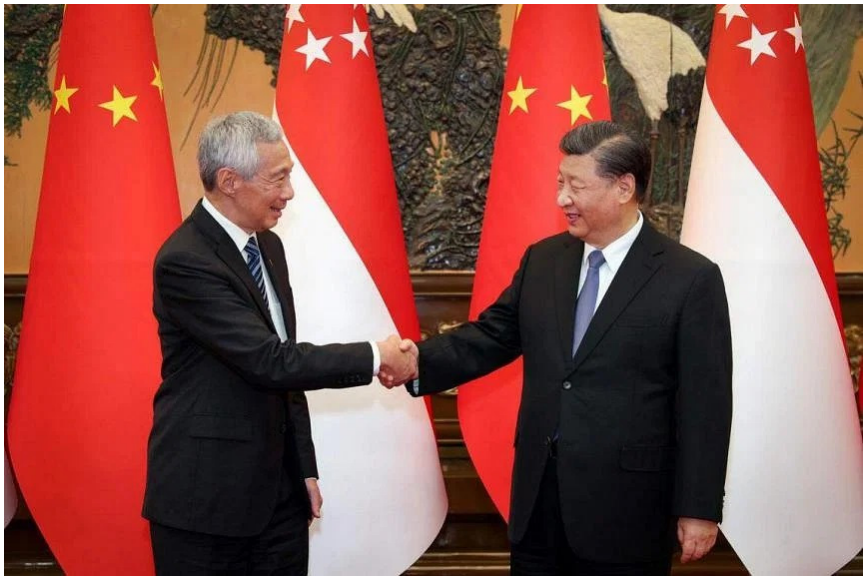


그림 출처: The Strait Times

아시아

중국

한편,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과 국방부 핫라인을 개통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07년 국방부 핫라인 개통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간 민감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개통 이후 실제로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최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돼 논란이 됐을 때에도 핫라인을 통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여러 차례 논의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국방부 핫라인을 개통했다. 2022년 11월 17일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해역 등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올해 3월 31일 핫라인이 실제로 개설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4년 11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국방부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고, 다음해인 2015년 12월 31일 정식 개통했다. 한·중 해공군 간 핫라인은 국방부보다 앞선 2008년 11월에 정식 개통되었다.

출처 : [1] 정책브리핑, 2008년 11월 25일, “한-중, 해·공군간 직통전화 개통” [2] 한겨레신문, 2015년 2월 4일, “한·중 국방부간 ‘핫라인’ 설치된다” [3] The Diplomat, 2023년 6월 2일, “Singapore to Establish Defense Communications Hotline With China” [4] The Strait Times, 2023년 4월 1일, “Singapore and China to elevate ties following meeting between PM Lee and Xi Jinping” [5] SCMP, 2023년 6월 1일, “China, Singapore agree to work on secure phone link for ‘high-level’ military communications” [6] 环球时报, 2023년 6월 2일, “建热线，中新两国防务关系迈上新台阶” [7] 亞洲週刊, 2023년 5월 29일, “黃循財訪華加強中新關係 新加坡避免捲入台海衝突”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중국 항모 '산둥함' 서태평양에서 첫 원양 훈련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하 항모)인 산둥함이 지난 4월 초 서태평양 괌 인근 해역에서 처음으로 원양 훈련을 시행했다. 일본 방위성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산둥함은 4월 5일 바시 해협을 지났으며, 8일부터 서태평양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산둥함은 모항이 하이난 산야(三亞)인데, 이번 훈련을 위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산둥함 항모 편대에는 미사일 호위함과 보급함 등이 포함됐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도 최근 서태평양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해군의 두 항모가 모두 작전 영역을 점차 제1도련 밖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랴오닝함의 경우 모항이 산둥성 칭다오이기 때문에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이 역시 미국이 설정한 제1도련을 넘은 것이고 제2도련 상의 괌 주변 해역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대만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상당한 압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13. 중국의 제2호 항모, 산둥함



그림 출처: 旺報

대만 군사전문가, "중국 항모, 보급 및 대잠 능력 부족"

중국 해군의 양적, 질적 성장이 상당히 빠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

아시아

중국

항모전단이 실전 경험이 부족할 뿐더라 지속적인 병참 보급과 대잠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육군 리민황 중령은 국방안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중국 해군은 "부족한 원양에서의 실전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아덴만에서 호위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작전 경험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08년 12월 26일 처음으로 아덴만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상시적인 원양 임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실전 경험, 특히 원양에서의 실전과 훈련 경험은 경쟁국인 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2005년 러시아와 연합 해상훈련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우방국들과 공동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실전 능력의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중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양 연합 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중국 산둥함의 서태평양 훈련



그림 출처: 中國時報

또한 중국 해군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함대 보유 측면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하지 않는 부족한 보급함 수가 딜레마인 것으로 지적된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군의 최신 종합 보급함은 총 16척인데 그 중 실제로 원양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보급함은 12척에 불과하다. 보급함 부족 문제는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힘들다. 이는 다시 말해 단기간 내에 대규모 병력을 투사하여 지속적인 전투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시아

중국

이밖에 리민황 중령은 중국 해군의 대잠 능력 부족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잠 헬기 수량 부족과 낙후된 장비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운영 중인 미사일 구축함은 대부분 대잠헬기를 장착하지 않았다. 리 중령은 보고서르 통해 055형 구축함에 선상 헬기 2대, 052D형 구축함에 1대가 탑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잠 헬기 발전 속도는 해군 함대 발전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 능력에 오랜 약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앞으로 중국 해군의 글로벌 기지 확대 동향도 주목해야 할 지적된다. 미국 연구기관 랜드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이 2022년 12월 8일 발표한 "중국의 글로벌 기지 야망(China's Global Basing Ambitions)"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Djibouti) 이외에 앞으로 10~20년 안에 글로벌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은 남아시아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와 미얀마일 것으로 위 보고서는 전망했다.

출처 : [1] JCristina L. Garafola et al., 2022년 12월, "China's Global Basing Ambitions" [2] 李旻皇, 2023년 5월 26일, "中共海軍「山東艦」首次西太平洋 遠海長航訓練之觀察", 國防安全研究院 [3] 旺報, 2023년 5월 2일, "共軍雙航母同現西太平洋 考驗佳山基地" [4] 中國時報 , 2023년 6월 5일, "美媒 : 中國海軍山東號航母甲板上驚現無人機群"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중국, 6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2023년 5월 4일 공고를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내 무역을 위한 환적항으로 추가하며, 6월 1일부터 정식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무역이란 중국 내 지역(성) 간 화물 교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동북 지역의 화물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용해 동부 저장성 항구로 운송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성의 저우산(舟山) 영저우(甬舟)컨테이너터미널과 지아싱(嘉兴) 자푸항(乍浦港)이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연결될 통관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림 15. 블라디보스토크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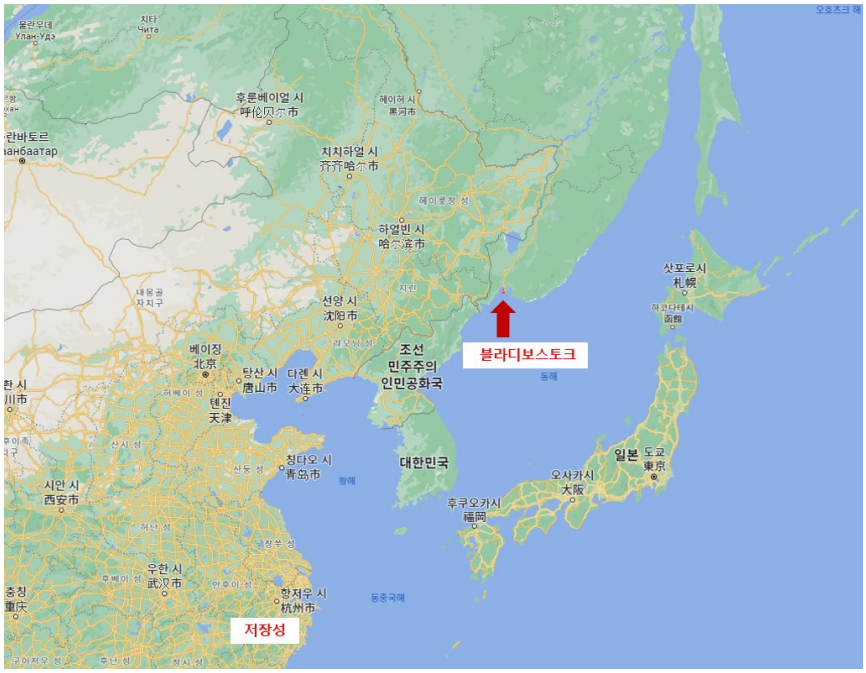


그림 출처: Google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양국의 물류 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나온 조치다. 시진핑과 푸틴은 당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물류 시스템 발전을 비롯한 중국 동북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러·우 전쟁 이후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

아시아

중국

동남 연안 항구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선 운송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은 약 1,9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 최대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 지역 간 교역량 증가 속도가 빠르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스푸트니크(Sputnik)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간 무역액은 지난해 220억 달러를 기록해 3년 전인 2019년 100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지린성 훈춘시 항무국(航务局)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내 무역을 위한 환적항으로 추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그림 16.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20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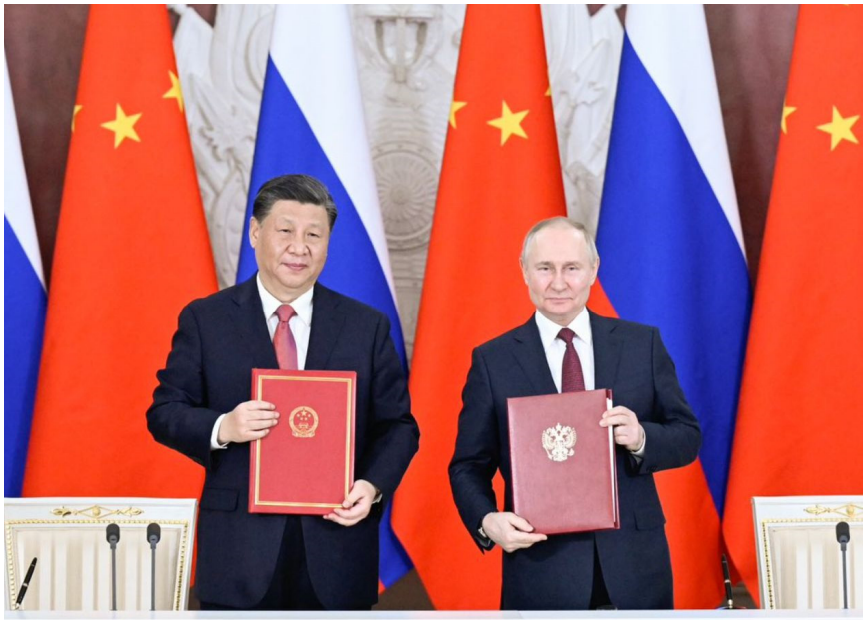


그림 출처: The EurAsian Times

중국, 163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국내 화물 환적에 이용

중국 동북부의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인접한 항구가 없어 해운 이용 시 오랫동안 랴오닝 다롄항에 의존해 왔다. 지린성 훈춘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는 불과 2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연해주가 1860년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륙을 거쳐 황해 다롄항까지 와야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 상품 생산지역인 동북부에서 경제 중심지가 집중된 동부 연안까지

아시아
중국

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낙후한 운송 시스템은 동북 지역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중국의 다른 지역도 동북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육로로 약 1,000km 떨어진 다롄항보다 훨씬 가까운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물류 효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레이(연해주)의 중심 도시이자 극동 지역 최대 항구다. 과거 중국에 속했으나,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1860년 '베이징조약'을 체결하고 연해주와 사할린을 포함한 우수리강 동부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올해 6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163년 만의 일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그림 17. 청에서 러시아로 연해주와 사할린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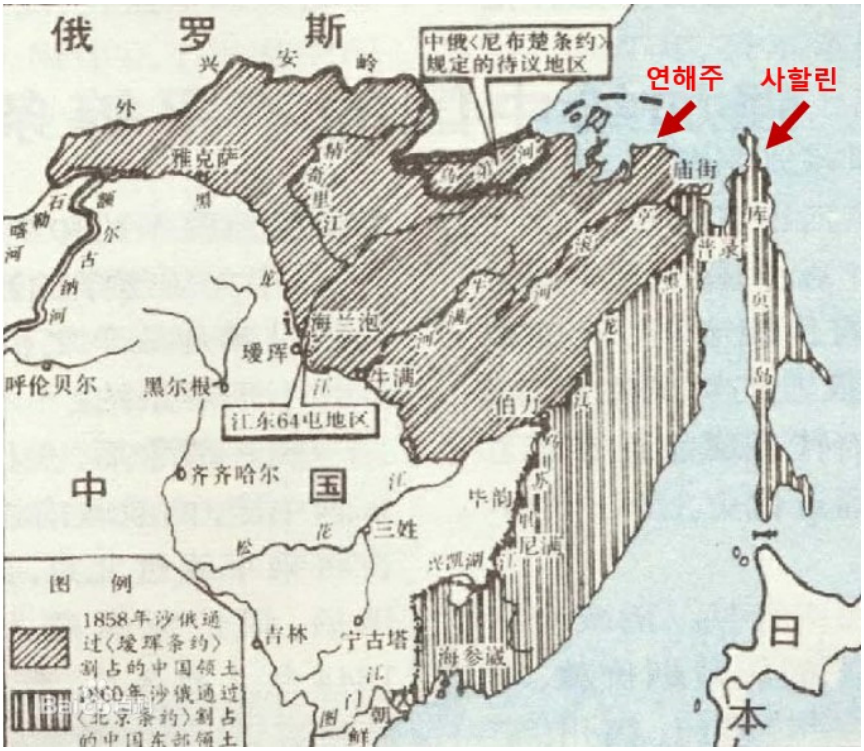


그림 출처: 百度百科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이 국내 무역 환적항으로 사용하는 최초 혹은 유일한 외국 항구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국내 무역 운송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동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아시아

중국

보스토치니(Vostochny)와 나홋카(Nakhodka) 항구를 국내 무역 화물 운송을 위해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Zarubino)항도 중국 국내 무역에 개방된 바 있다. 중국은 나진항을 50년간 장기 임대했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 강화로 인한 북·중 경제협력 사업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관련 협력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방, 중·러 관계 강화 등 전략적 영향 주시

한편, 미국 등 서방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 일본과도 인접해 있으며, 중국이 제1도련선을 뚫고 태평양에 직접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향후 북극항로 진출 시 미칠 지정학적, 지경학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그러한 기대가 있다. 중국 환구시보(글로벌타임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지역을 거대한 시장과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전 세계 공급망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1] The EurAsian Times, 2023년 5월 21일, "China Emerges 'Biggest Winner' Of Russia-Ukraine War; Regains Vladivostok Port After 163 Years, Beats Japan In Auto Market" [2] SPUTNIK, 2023년 5월 26일, "俄部长：去年俄远东地区与中国贸易额较2019年增长一倍多" [3] 环球时报, 2023년 5월 15일, "社评：中俄远东合作空间，远不止于海参崴" [4] 每日经济新闻, 2023년 5월 15일, "重磅！东北大利好！俄罗斯海参崴港，将成为吉林内贸货物跨境中转口岸" [5] 中华人民共和国, 2023년 5월 4일, "海关总署海关总署公告2023年第44号(关于进一步拓展吉林省内贸货物跨境运输业务范围的公告)"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일본-영국,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히로시마 합의 발표

최근 일본과 영국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 2022년 12월 영국-일본-이탈리아 간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을 출범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한 첫 사례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영국과 일본은 안보협정인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했다. 이어 영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3월 29일 가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 이외에 처음으로 추가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이런 양국 협력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5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영국 리시 수낵(Rishi Sunak) 총리는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과 '강화된 영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히로시마 합의'(Hiroshima Accord)를 발표하고 안보, 무역,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표방했다.

영일 히로시마 합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영일관계의 방향성

첫째,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전 보장과 번영을 불가분으로 인식하고 공통의 안전 보장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안전은 경제의 안정성 · 강인성 및 활력 위에 성립한다는 인식하에 경제 관계 심화에 합의한다. 글로벌 과제는 협력에 기반해야 대처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도한다는 세 가지에 양국 의견이 일치함을 바탕으로 강화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에 합의했다.

■ 안전보장 분야 협력

안전 보장상의 과제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하면서, 대규모의 복잡한 합동 훈련·계획 프로그램을 포함해, 양국의 방위,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양국은 아시아 · 유럽에서 상호 가장 긴밀한 안전보장상의 파트너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의 비전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시아

일본

차기 전투기 공동 개발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인재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통합하며, 양국 '상호접근협정'(RAA)을 활용해 합동훈련을 확충하고(향후 영국 항공모함 타격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하는 것 포함),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위대에 의한 자산 방호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양국간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무기 등 방호' 측면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로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무기 등 방호'는 자위대와 타국 군이 함께 활동할 때, 자위대가 상대국의 군함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자위대의 임무이다. 미국과 호주는 2022년 6월에 일본과 무기방호에 합의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서 제3국으로부터 자국민의 대피를 위한 계획 수립에의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공통의 동맹국 · 파트너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나토간 협력 심화를 실현해 가기로 했다. 한편, 우주 ·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영일 사이버 파트너십'을 창설해 민관 참여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 경제 분야 협력

경제 분야의 협력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술 교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AI 거버넌스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영국의 국제통상부 간에 장관급 회의 창설에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간 경제안전보장 대화 등을 통해 공급망 강화,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등 경제 분야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요 광물에 관한 협력 각서를 연내에 협의하여, 주요 광물에 관한 협력 추진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파트너십을 활용해 관련 분야 공동 연구개발에의 협력을 모색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양국간 디지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I, 전기통신, '신뢰 기반 데이터 자유 이동'(DFFT) 등에서의 협력을 가속하되 인간 중심 AI를 위한 AI 거버넌스 형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 분야 장관급 회의를 활용해 건강 · 과학 · 혁신에 관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관광, 유학, 연구 협력, 문화 · 예술 등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

기후변화에의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성 확대 등 글로벌 과제에 관해서도 양국 간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 우선 2050년까지 넷제로를

아시아

일본

달성하기로 약속하고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및 지정학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에 합의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형원전, 차세대원전, 핵연료, 폐기물관리 등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리고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했으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유지에 대한 양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속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하는 한편, 영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 [1] 日本貿易振興機構, 2023년 5월 19일,「日英広島アコード」に両国首相が合意、さらなる関係深化へ [2] GOV.UK, 2023년 5월 17일, PM to agree historic UK-Japan Accord ahead of G7 [3] 外務省, 2023년 1월 11일, 日英部隊間協力円滑化協定の署名 [4] 朝日新聞, 2022년 6월 12일,「武器等防護」日米豪が合意 防衛相会談

아시아
베트남

전문연구원 이 서 희

베트남,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비난

남중국해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이자 해상항로이다. 또한, 막대한 양의 석유 및 가스가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의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 국가들은 남중국해 주변 해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적·지리적·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UNCLOS") 제7부속서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다. 필리핀은 구단선에 근거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UNCLOS 위반인지 여부, UNCLOS상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4]에 위치한 여러 수중 지형의 법적 지위등을 청구 취지로 제시하였다.

2016년, 남중국해 사건에서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관련 9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정 이후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18일,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양탐사선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활동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중국 해양탐사선 및 선박 철수 요구

지난 5월 14일, 베트남은 중국 해양탐사선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으로 이동하면서 베트남과 중국 선박이 여러 차례 대치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중국 선박 대치의 원인은 베트남이 뱅가드뱅크(Vanguard Bank) 인근 05-1A광구 시추 작업 확대를 위한 계획을 내부 통지문으로 게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뱅가드뱅크는 스프래틀리 군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암초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내에

4) 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은 난사군도이며 베트남명은 쯔엉사군도, 필리핀명은 카라얀 군도이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 팔라완 주에서 북서쪽으로 약 195km(121마일) 떨어진 지역이며, 남서 해역에 위치한 약 35개의 소도, 사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 넓이는 약 15,000㎢이다.

아시아
베트남

있으며, 과거 2019년 8월 중국이 해양탐사선을 파견하여 베트남과 중국 선박이 대치했던 곳이다. 한편으로, 이 지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 내 위치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과 중국 선박의 대치에는 12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하였다. 중국은 해양탐사선 샹양홍(向阳红) 10호와 중국해안경비대 선박 및 중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9척을 남중국해 베트남 경제수역에 배치하였다. 특히, 샹양홍 10호는 여러 척의 선박과 함께 남중국해 베트남 경제수역으로 진입하였다. 5척의 베트남 선박이 이에 대응하였다.

5월 25일,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중단을 요청하였다. 베트남은 해안경비대 및 어선과 함께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한 중국에 대해 "중국 해양탐사선 상양홍 10호가 다수의 해안경비대 및 어선과 함께 1982년 UNCLOS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트남은 자국 영해에서 상양홍 10호와 다른 중국 해안경비대 및 어선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그림 18. 중국 해양탐사선 상양호 10호



그림 출처: Inside VINA

베트남 외교부와 관련 기관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공동선언(Declaration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DOC")에 따라 중국 측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베트남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국제법과 베트남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베트남 외교부는 DOC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야

아시아
베트남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 측 기관에 양국 정상의 공통된 인식 준수, 모든 위반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 존중을 요구하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해양탐사선이 조사를 목적으로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대적인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82년 UNCLOS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모든 연구조사 활동은 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활동이 관할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스프래틀리 군도에 3개의 등부표 배치

5월 24일, 중국 해사안전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3개의 등부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 등부표 배치가 해당 지역 선박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의 등부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베트남은 베트남의 허가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 지형의 등부표 배치는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과 필리핀

5월 10일부터 5월 12일, 필리핀 해역 내 법 집행을 감독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PCG)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마일(322km) 구역 내 필리핀 국기가 새겨진 5개의 항행용 부표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이와 같은 부표 배치가 UNCLOS에 따른 연안국으로서 필리핀의 권리 행사이며, 우리 해역의 항해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와 같은 필리핀의 항해용 부표 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베트남

그림 19. 필리핀해안경비대(PCG)



그림 출처: USNI News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남중국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5]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베트남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첫째, 베트남 총리는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하였다.

둘째, 베트남 총리는 각 국가들의 DOC 이행을 강조하면서, 국제법 특히 UNCLOS에 따른 실질적·효과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을 달성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베트남 총리는 1982년 UNCLOS상 국가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침해 행위 금지를 요청하였다. 이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협력과 연대가 평화와 안정,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보장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베트남 총리는 각 국가의 법치주의 원칙과 유엔헌장에 따른 자유롭

5)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의 7개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다. (G7)은 1975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G7은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정상회담 개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준비한다. 의장국은 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영국-독일의 순으로 바뀐다. 그러나 7개국 외 다른 국가를 초청하여 확대회담을 개최하기도 한다. 확대회담을 개최하는 이유는 세계경제에서 G7이외 국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회담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초청 대상 국가는 명확한 기준은 없이 의장국의 주도로 선정된다. 이번 G7 정상회담 의장국인 일본은 우크라이나 이외에 한국·호주·인도·인도네시아·쿡제도·코모로·브라질·베트남 등 8개국 정상을 회담에 초청하였다.

아시아
베트남

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의 준수를 요청하였다.

다섯째, 베트남 총리는 아세안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세안을 통한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82년 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하였다.

그림 20.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그림 출처: ASIA NEWS NETWORK

아세안과 남중국해

5월 24일, 베트남에서 제20차 아세안-중국 DOC이행에 관한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아세안 안보협력기구 베트남 대사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방행위(unilateral actions)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베트남은 이 회의 참가국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국제법과 1982년 UNCLOS가 남중국해 활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은 이를 통한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유지를 강조하였다.

2002년, 아세안과 중국은 항공과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OC에 서명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DOC, 국제법, 특히 1982년 UNCLOS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COC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COC 초안은 2018년에 작성되었으며, 2019년 1차 개정이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로 강령의 초안 작성과 이행에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아세안과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COC의 2차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COC 협의의 가속화 및 올해 내 2차 문안의

아시아

베트남

작성 완료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 [1] SWI, 18 May 2023, Vietnam rebukes China, Philippines over South China Sea conduct [2] R. REPUBLICWORLD.COM, 14 May 2023, Vietnamese And Chinese Vessels Engage In Fresh Stand-off In South China Sea: Reports [3] yahoo!finance, 14 May 2023, New stand-off between Vietnamese and Chinese ships reported in South China Sea [4] NOVA News, 19 May 2023, South China Sea: Vietnam criticizes the conduct of the Philippines and China [5] Reuters, 18 May 2023, Vietnam rebukes China, Philippines over South China Sea conduct [6] WION, 15 May 2023, In show of power over disputed Spratly islands, Philippines sets up buoys in South China Sea [7] ASIA NEWS NETWORK, 22 May 2023, PM Chinh highlights Vietnam's stance on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8] REPUBLICWORLD.COM, 14 May 2023, Vietnamese And Chinese Vessels Engage In Fresh Stand-off In South China Sea: Reports [9] Inside VINA, 2023년 5월 26일, 베트남, 중국에 '동해(남중국해) EEZ서 해양탐사선 철수' 강력 요구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김소연

미국의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경제적 관계 강화에 주력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비즈니스 챔버(Auckland Business Chamber)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국 비즈니스 서밋에서 미국은 앞으로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적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안에는 태평양 도서국의 정상들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며, 특히 태평양 도서국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분야들에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미국이 태평양 도서국들과 잇따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5월 22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국방협력과 해양감시를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팔라우 정부와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 COFA)을 20년 연장 및 갱신하였다, 이후 미크로네시아 정부와도 협정을 갱신하였으며 마셜제도와의 협정 갱신은 머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래 이 협정은 1980년대에 체결되었는데, 팔라우와는 2024년에 종료, 미크로네시아와 마셜제도와는 2023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COFA 협정의 본질적인 목표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이들 국가의 영공 비행 및 영해를 항행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안보 지원과 미군 주둔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이 3개 국가에 대해 20년간 총 6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협정의 갱신을 통해 미국과 이들 3개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를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조셉 윤 미국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임대사는 “COFA 협정 및 그 갱신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COFA 협정은 미국과 북태평양 지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은 2022년 4월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에 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력 확장을 먼저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솔로몬제도에 30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이어 통가에도 대사관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외에

북아메리카

미국

도 바누아투·키리바시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대사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태평양 지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8억 1,0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다른 태평양 도서국들은 미중 양국간 힘겨루기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뉴질랜드에서는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으로 인한 태평양의 군사화 가능성이 생기면서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COFA 협정의 갱신을 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 노력의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21.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림 출처: Reuters

출처 : [1] The Diplomat, 2023년 5월 23일, “Despite Biden’s Absence, US Makes Inroads With Pacific Islands” [2] The Guardian, 2023년 5월 16일, “US to sign pacts with Micronesia and PNG as Washington seeks to counter China in Pacific” [3] Reuters, 2023년 5월 24일, “U.S. signs agreement to continue Micronesia assistance under strategic pact” [4] Axios, 2023년 5월 23일, “Biden seals 3 deals in Pacific islands as U.S. competes with China” [5] VOA, 2023년 5월 3일, “US to Invite Pacific Leaders to White House, Increase Diplomatic Outreach”

유럽

유럽연합

전문연구원 김지혜

유럽연합-인도태평양 각료포럼 개최

지난 5월 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2차 EU-인도태평양 각료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정책 고위대표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의장인 조세프 보렐과 스웨덴 외교장관 토비아스 빌스트롬이 주재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26개 인도태평양 국가와 지역기구를 대표하는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그림 22. EU 인토-태평양 각료포럼



그림 출처: Magnus Liljegren

2022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차 포럼의 성공에 이어 제2차 포럼은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공동의 번영을 증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동 비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 "녹색 기회의 추구와 세계적 도전과제의 극복", 그리고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동시에 진행되는 3개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 포용적인 접근 장려,

유럽

유럽연합

무역과 경제관계를 다양화함으로써 더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기후변화, 기후 중립, 에너지 안보, 생물다양성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 수호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2023년에 인도가 주최하는 G20 회의와 일본이 주최하는 G7 회의는 공동 의제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동의했다.

출처 : [1] The European External Service, 2023년 5월 13일, "The EU Indo-Pacific Ministerial Forum: Co-chairs' press release"

유럽
러시아

전문연구원 김 지 혜

노르웨이 트롬쇠에 미국의 최북단 외교 공관 설립 예정

미국이 금년 중 노르웨이의 북극도시 트롬쇠에 재외공간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소하게 되면 이는 미국의 최북단 재외공관이자 북극권 한계선 내 위치한 유일한 미국 재외공관이 될 예정이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트롬쇠에 미국 재외공관을 설치하는 것은 북극권 한계선 내 외교 발자국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며 미국은 최근 평화가 도전받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북극은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지키고자 하는데 의지가 있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북극 원주민과의 협력, 기후변화 대응, 천연자원 관리 등은 미국이 북극권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는 분야로 북극권에 재외공관의 존재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롬쇠에 설치될 미국 재외공관은 규모가 작지만 그 상징성에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북극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으며,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노르웨이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북극의 최상의 정부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임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의장국을 노르웨이가 수임하면서, 향후 북극이사회의 정상화와 함께, 북극협력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림 23. 노르웨이 트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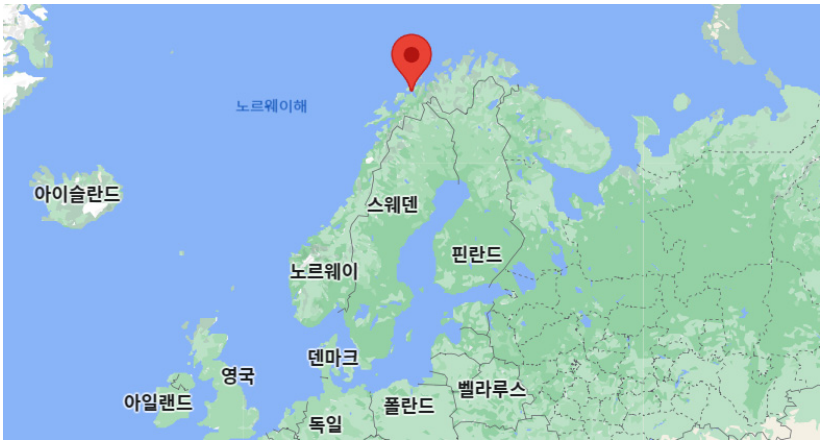


그림 출처: Shen Hong/Xinhua/Getty Images

출처 : [1] The Barents Observer, 2023년 6월 2일, “U.S set to open sole diplomatic post above Arctic Circle”

유럽
러시아

전문연구원 김 지 혜

對러시아 제재 장기화에 따른 몽골리아 등록 편의치적선 증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내륙국인 몽골리아에 등록된 편의치적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상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몽골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이지만, 서류상 몽골리아를 기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3,000척이 넘는다. 특히 최근 몽골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 대부분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재화를 운송하고자 하는 해운사들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림 24. 내륙국인 몽골리아



그림 출처: 구글지도

몽골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편의치적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나 해운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몽골리아에게는 해운 산업에서의 평판이나 관계 형성은 중요하지 않아 몽골리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매우 부실한 몽골리아의 선박 등록 기준은 선박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해운 규칙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해운회의소가 발표한 '2022~23년 해운산업 기국 평가표'

유럽

러시아

에 따르면, 몽골리아는 18개 평가 기준 중 7개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빨간 깃발을 받았다. 이에 비해 편의치적국으로 잘 알려진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제도의 경우 빨간 깃발을 받은 부문이 없었다. 또한, 도쿄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몽골리아를 토고, 시에라리온, 도미니카 등의 국가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그림 25. 앤트워크항에 억류된 가틱선박관리 소유의 갈라티아호



그림 출처: 구글지도

하지만, 몽골리아에 편의치적선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위의 보고서가 영향을 미치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서방 보험사에 가입할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운영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나타난다. 예컨대,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둔 선박운영사인 가틱선박관리(Gatik Ship Management)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것으로 발각된 후 기국으로 두고 있던 세인트키츠네비스가 가틱社의 선박 36척의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가틱선박관리는 재빨리 이중 4척은 몽골리아를 기국으로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가봉을 기국으로 등록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추가적으로 최근 러시아 국영기업이 화물보험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와 같은 해운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아 보험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와 같은 타 편의치적국들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들 국가들의 선박 등록 담당 기관은 서방

유럽

러시아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거나, 미국 정부의 제재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로부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특히나 해운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몽골리아에게는 해운 산업에서의 평판이나 관계 형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선박 등록 사업은 단지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출처 : [1] Foreign Policy, 2023년 6월 1일, “Mongolia’s Paper Fleet is Helping Russia Dodge Sanctions”

남태평양

호주

전문연구원 민영훈

호주, 필리핀의 남중국해 MDA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개

지난 5월 18일(목) 호주 외교부 장관 페니웡(Penny Wong)은 필리핀과의 해양안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항행의 자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남중국해의 강대국 패권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당시 페니웡은 5월 18일 필리핀을 공식 방문하면서 이 같은 사항을 밝혔으며, 필리핀과의 협력은 필리핀 연안 경비대에 대한 기술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드론을 포함한 장비지원, 해양환경 보호와 MDA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필리핀 외교부 장관 엔리퀘 마날로(Enrique Manalo)와의 당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호주는 서필리핀해,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해역에서 호주의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26. 호주 및 필리핀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날로, 페니웡)



그림 출처: AP News

남태평양

호주

또한 호주 외교부 장관은 서필리핀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실시하는 해상순찰에 대해 호주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개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협력이 남중국해 등에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호주와 필리핀 두 외교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며 주권이 존중되고 합의된 규칙과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하면서, 특히, 호주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설치한 군사시설과 활주로, 지대공 미사일, 인공섬 등은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0년간 양국간 관계가 유지된 것을 양측 외교부 장관은 강조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안보와 방위를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더불어 양국 장관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향상시킬 것에 동의하고, 호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또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호주는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포괄적 경제 성장, 교육, 재난 및 기후 변화 대응, 민다나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2023-2024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8,99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필리핀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항해의 자유 작전 등을 통해 이들 해역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이는 남중국해의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호주, 미국 등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호주는 미국, 필리핀 등과 합동 순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MDA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 AP News, 2023년 5월 18일, Australia to provide surveillance drones to Philippines amid South China Sea tensions [2] GMA News Online, 2023년 5월 18일, Australia unveils maritime package for Philippines, vows commitment to SCS presence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전문연구원 김소연

미국-파푸아뉴기니, 방위 및 해양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5월 2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인도·태평양 도서국 협력 포럼(Forum for India-Pacific Islands Cooperation, FIPIC) 개막 전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상호 방위·감시 협정(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DCA)에 서명하였다. 이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파푸아뉴기니가 동등하고 주권적인 파트너로서 초안을 작성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은 파푸아뉴기니에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파푸아뉴기니의 방위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을 위해 보호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안보협정과는 별도로 기후 문제 해결과 초국가적 범죄 및 HIV/AIDS 해결을 포함한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위해 4,500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불법적인 다국적 해상활동에 대한 대응 협정도 함께 체결하였다. 양국은 이번 협정의 체결이 오래 전 체결한 SOFA 협정을 대체함으로써 안보 협력을 현대화하고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자 및 다자 훈련을 지속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긴급 상황에서 미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UU 어업,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대량살상무기(WMD)의 불법 운송 등 다양한 해상 위협 대응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미국 해안경비대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군은 파푸아뉴기니의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사시에는 주둔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해안경비대 함정을 파푸아뉴기니까지 파견하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해 파푸아뉴기니 해역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파푸아뉴기니가 새로운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의 Shiprider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파푸아뉴기니의 고유한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미국 국무부는 “파푸아뉴기니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약탈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이들을 비롯해 영토 보전과 책임 있는 해양 자원 사용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단합 대응(strong, united response)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7. 미국-파푸아뉴기니 간 방위협력협정 체결



그림 출처: The Guardian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토레스 해협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잠재된 미래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전략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세계 패권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 역시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서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소속 14개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찾아, 인도는 PIF 회원국 정상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가 될 것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을 약속하였다. 또한 인도는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그림 28.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그림 출처: The Guardian

파푸아뉴기니를 둘러싸고 주요국들의 경쟁이 첨예화되자 중국은 경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남태평양 10개국 순방 및 솔로몬 제도와의 안보협력 협정 체결 등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과 지속적인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협정 체결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지정학적 관계를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남태평양 방문에 대해 "태평양 지역에 지정학적 게임을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미국과 파푸아뉴기니 간의 협정 체결에 대해 파푸아뉴기니가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자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파푸아뉴기니가 미국의 공격 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은 중국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중국과는 건전한 관계이자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협정 체결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이후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당초 예정되어있었던 호주와의 방위 협정 체결에 대해, '특정 단어와 조항'을 이유로 협정 체결을 보류하였다. 이 협정 체결의 배경 역시 다른 방위 협력 협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견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에게 "협정과 관련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특정 단어와 조항에 관하여 국내 절차 및 최고법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설명하며 협정 체결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다. 앞으로 태평양 지역의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1] The Guardian, 2023년 5월 22일, "US and Papua New Guinea sign pact amid Pacific militarisation concerns" [2] The White House, 2023년 5월 22일, "U.S.-Pacific Islands Forum Leaders Dialogue in Port Moresby, Papua New Guinea" [3] Reuters, 2023년 5월 23일, "US, Papua New Guinea sign defence agreement as Modi pledges support for Pacific Islands" [4] U.S. Department of State, 2023년 5월 22일, "The United States and Papua New Guinea Sign New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and an Agreement Concerning Counter Illicit Transnational Maritime Activity Operations"

3개월 내 행사계획

국제해양법학회 춘계 학술행사

6월 2일(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최** 국제해양법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요 내용** 제1세션 해양생물다양성
  제2세션 해양기후환경
  제3세션 국제해양법 현안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6월 16일(금) / 서울 더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 **주최** 대한국제법학회
- **주요 내용** 제1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제2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학술행사
  제3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대토론회
  제4부.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6월 12일(월) ~ 16(금) / 미국 뉴욕 유엔본부

- **주최** 국제연합
- **주요 내용** 매년 개최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간 회의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제2차 당사국총회

6월 12일(월) ~ 14일(수)/ 대한민국 인천

- **주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당사국
- **주요 내용**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해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체결한 협정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8월 23일(수)/ 경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당사국
- **주요 내용** (대회 공고 및 참가자 모집) 2023.5.18.(목) ~ 7.7.(금) 18시까지
  (변론서 접수 마감) 2023.7.21.(금) 18시까지
  (본선 진출침 발표) 2023.8.11.(금) 예정
  (대회 및 시상식 개최) 2023.8.23.(수)